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집착을 끊고

HYM청년연합집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제40회 HYM청년연합회(대표 더글라스 김 목사)가 '거룩한 산 제사' (로마서 12:1-2)라는 주제로 오는 27(토)-28(일)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목사 남성수,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에서 열린다.

캄보디아 선교동원가이자 Life Giving Ministry의 디렉터인 오석환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HYM대표 더글라스 김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로 드러져야 한다." 고 주제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HYM집회는 20년 전부터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영적 영성 부흥에 목적을 두고 열리고있다.

HYM은 'Here am I Young Christian Movement' 의 약자이다.

문의: (714)393-5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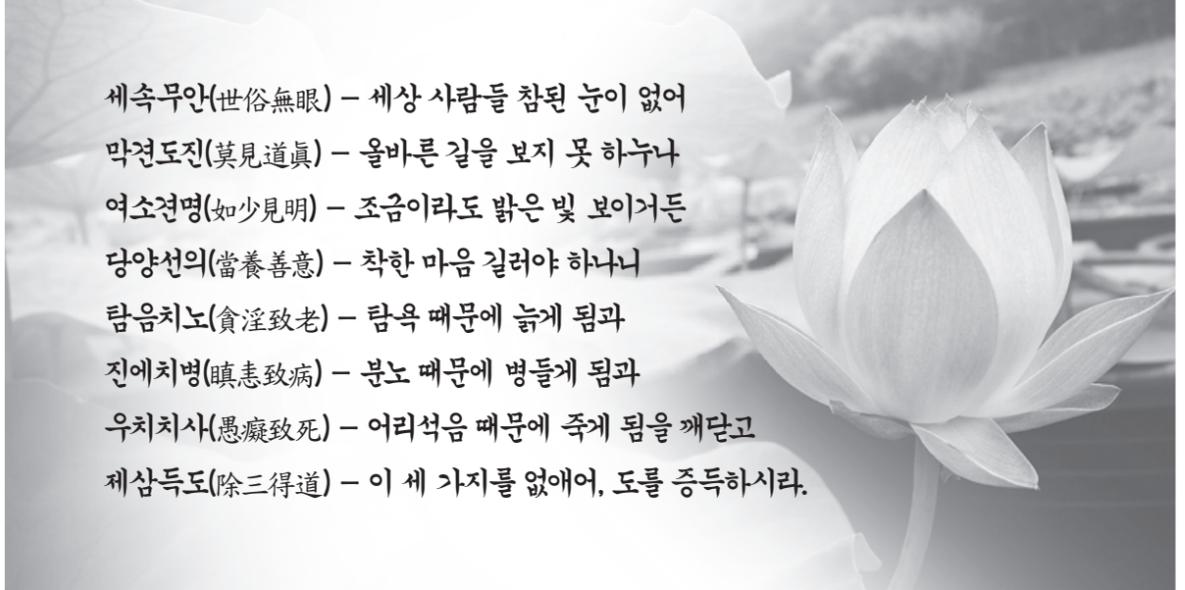
창립 감사예배 남가주주은혜교회

남가주주은혜교회(담임목사 최경원, 2701 E. Chapman Ave, #214, Fullerton, CA 92831)가 지난 7일(일)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백승찬 목사(코로나감사한인교회 담임)는 '물히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31:1-12)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 궁정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때가 되자 그를 친히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모두 예비하시되 특히 준비된 자들 가운데서 사역자를 찾으셨다." 며 "얼굴로 승부하는 교회(전도), 말씀으로 생명 주는 교회(목회자),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성도)가 되라." 고 말했다.

최경원 담임목사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사역을 하도록 하겠다. 주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 며 창립 소감을 전했다.

문의: (714) 657-6205



세속무안(世俗無眼) - 세상 사람들 참된 눈이 없어
막연도진(莫見道眞) -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누나
여소견명(如少見明) - 조금이라도 밝은 빛 보이거든
당양선의(當養善意) - 착한 마음 길러야 하나니
탐음치노(貪淫致老) - 탐욕 때문에 늙게 됨과
진에치병(瞋恚致病) - 분노 때문에 병들게 됨과
우치치사(愚癡致死) - 어리석음 때문에 죽게 됨을 깨닫고
제삼득도(除三得道) - 이 세 가지를 없애어, 도를 증득하시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무척 아름답습니다.

어느 곳이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만의 장점을 갖고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숨겨진 그 진여를 깨닫지 못함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분노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손가락을 하나 펴고 "손가락이 몇 개 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이들은 "한 개 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숨겨진 다른 손가락을 보지 못하고 대답한 단편적인 답변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다투고, 성내고, 미워하는 것들은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난 일부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도 다툼, 성냄, 미움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나와 인연되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나타난 그릇된 모습만 보려하지 말고 그들 뒤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보세요. 그들 모두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행복이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나와 내 주변의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곧 행복한 것이지요. 내 마음이 평온하기 위해선 모두를 아름답게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되면 내 마음이 즐거움은 물론, 내 주변 까지도 즐겁게 만들게 된답니다. 이것을 파장의 법칙이라 합니다.

즉 잔잔한 호수에 조약돌 하나를 떨어트리면 그 물결은 온 호수를 덮어버리듯 내 마음의 즐거움은 내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풍요로운 꽃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웃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아무 조건없이 모여서 그냥 막 웃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웃음이 나오지 않아 억지로 웃게 되는데 그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되고 실컷 웃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불자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자꾸 상대방의 감춰진 장점을 찾아 칭찬해 보십시오. 상대방도 나에게 두 번 다시 힘들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되면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을 분노케 하였기에 언행이 거칠어진 것이지요. 그들 뒤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이미 부처가 되신 것입니다.

미소가 있고, 남을 위한 배려가 있는 귀하의 가정은 그 어떤 막힘도 없이 행복하실 것입니다.

늘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아름다운 정원사가 되시길...

-수완나 스님-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